

근대 문화유산의 평가 기준과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박재민* · 성종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 Study on the Value Criteria and Relative Importance for Conserv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Park, Jae-Min* · Sung, Jong-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value criteria that citizen evaluate themselves it when they found modern heritages in their town. To understand the changing of value criteria for the cultural heritage, we have to begin from early 20 century that were, however, diversified after 80's. As a result, early they evaluated with the architectural and aesthetic value mainly, after they evaluated with the social-cultural value and academical value, and nowadays they try to include the economical value and educational value. So this study rearranged and divided that value with the preservation and using value. The preservation value include the historical value, aesthetic value, social-cultural value and academical value, and the using value include the economical value and educational value. The criteria, however, don't have the equal importance, This study try to redefine relative importance score with paired comparison. As a result, Historical value is proved that most important criteria, but aesthetic value got the score lower than social-cultural value, and similar with academical values. And in using values, economical value and educational value got the low score. It means that if some researcher insist about the importance of economical value, it should evaluate lower than preservation values. This study insist that we have to include diversified values and that values have relatives score. Actually, now we mostly evaluate with the architecture and aesthetic values about modern heritage, so we are losing a lot of modern heritage. If we include the diversified values, social-cultural, academical and educational value, we can conserve our important modern heritage and revitalizing town with tourism of historical heritage.

Key Words: Cultural Heritage, Industrial Heritage, Modern, Criteria, Paired Comparis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주민, 향토사학자들이 찾아낸 근대 문화유산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Corresponding author: Jae-Min Par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876-9333, E-mail: mean-judy@hanmail.net

않는 곳곳에 숨겨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은 서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다소 모호하고, 일부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80년대 이후 서구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있어 초기 건축적, 미학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학술적 가치와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평가가치로 제시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시계열적으로 확장되어온 문화유산의 선정가치를 참조하여, 보전 가치와 관련한 역사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학술적 가치, 활용 가치와 관련한 교육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다만 선정된 가치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가장 주요한 선정 기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과거 중요한 가치였던 미학적 가치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화적 가치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개별 시설의 아름다움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의 사회, 환경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활용가치의 경우, 보전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건축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어 사라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 다각화된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민 스스로도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제어: 문화경관, 산업유산, 역사적 가치, 등록문화재, 쌍대비교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English Heritage(2007)는 21세기를 맞이하며 전통적 문화유산의 시대는 지나고, 근대 문화유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였다. 다시 말해 전통적 문화유산의 지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근대 이후의 인류 문화유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1년 등록문화재법 제정과 전국적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와 보전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대 문화유산의 속성상 일반인들에게는 단지 현 건물로 인식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는 개발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근대 문화유산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박재민과 성종상, 2012).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하향식 보전 정책과 모호한 평가기준을 들 수 있다(이민경과 김태영, 2008).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대안세력으로 지역주민, 제3섹터, 지자체 등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기준 내용은 다소 서술적이고 모호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대 문화유산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전봉희, 2008; 정이순, 2005; 김중현, 2006). 특히 근대 문화유산은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으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의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서구 유럽에서는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가치평가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80년대 이후 다각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2000년대 전후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연구는 주로 국외 연구 이론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기존 기준을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방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에서 전개된 논의 과정과 함의를 토대로 전반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평가기준 재선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현재의 국내외 평가기준은 모두 동등한 수준으로 문화유산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에 있어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 La Torre(2002)는 문화유산의 보전에 있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역사적 가치와 동등하게 보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의 선정과 더불어 각 평가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 관련 문헌자료 고찰을 토대로 다각화된 최근의 문화유산 평가기준을 재분류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가치 기준을 전문가 대상으로 쌍대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객관적 수치로 산출하였다.

II. 연구 동향 및 평가 기준 선정

1. 국내 근대 문화유산 가치 평가 기준 관련 연구 동향 및 한계

국내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는 등록문화재법에 기초하

고 있다. 사실 등록문화재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의 다각화된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은 이미 단어 또는 문구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가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과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와 등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이민경과 김태영, 2008; 전봉희, 2008), 둘째, 평가기준이 건조물과 시설물을 중심으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근대문화유산 보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활용을 전제로 한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제도이지만, 이와 관련한 평가기준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종현, 2006; 김정신, 2004).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적 가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정이순(2005)은 기존 제시된 기준을 종합하여 용어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고, 이를 부산 근대문화유산에 적용하여 기존 평가기준의 주관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민경과 김태영(2008)은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그 내용적 의미를 주거 건축물에 적용하여 가치를 해석하였다. 이근규(1996)는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전승재(1999)는 Attoe(1979)의 기준을 재해석하여 면적(도시적) 범위로 대상을 확장하여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특히 박근수(2000)는 한국 근대건축물의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보전에 따른 가치, 즉 지역의 유산을 남겨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지역정체성과 삶의 흔적 또한 보전가치로 포함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그 외 근대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이승진(2000), 김종현(2006)과 정민섭 등(2008) 등은 근대 문화유산 평가에 있어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자들은 기존 등록문화재 평가 기준의 대안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역사적, 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환경과 사회적 가치와 활용 가치에 대한 모색을 통해 다양화된 가치를 담을 필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객관화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는 연구가 건축 관련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 건축물의 학술적 가치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 제기의 전제이기도 한 실제 그 삶의 환경으로서 문화경관을 보전해야 한다는 측면은 이미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삶의 환경과 경관을 주로 연구하는 조경과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연구와 평가 기준 또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주 4.3사건, 장항의 근대 산업경관 등은 비록 원형 자체는 거의 없거나 일부 훼손되었

표 1. 국내 관련 연구 내 근대 문화유산 선정 기준 비교

구분	문화재청 (2001)	이근규 (1996)	이민경과 김태영 (2008)	이승진 (2000)	전승재 (1999)	박근수 (2000)	정이순 (2005)
보전 관련	역사성, 상징성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문화적	역사성, 전형성, 희소성	역사성	역사적, 상징적
	조형성, 기술	-	건축적	건축적	심미성, 최상의 것	조형성	건축적
	학술적	-	학술적	-	-	학술적	학술적
	문화적	사회적	-	-	인접지역의 향상	사회문화적	지역적
활용 관련	-	경제적	-	실용적	-	(보전 시) 존재가치, 사회경제적	경제적, 효용가치

더라도, 그 사건과 당시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기존의 건축물 중심의 역사적 가치 평가가 아닌, 다각화된 사회·문화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새롭게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2. 국외 문화유산 선정 기준 변천과 특성

유네스코, 서유럽과 미국 내에서의 주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평가 선정 기준 연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내 관련 연구자가 앞서 문제 제기하였던 기준과 내용을 오랜 시간에 걸쳐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모두 수용하여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화유산의 관련 가치 평가 기준의 변천 관련 주요 연구와 국제현장을 토대로 그 변화 특성과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하여 근대문화유산의 평가에 적합한 가치 평가 인자를 도출하였다.

현대 문화유산 보존(preservation) 이론은 영국 존 러스킨(John Ruskin)의 낭만주의 이론과 프랑스 비올레 르 뒤크(Viollet-le-duc)의 합리주의 이론의 대립 속에서 발전하였다. 하지만 러스킨의 원형 보존이론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발전하였고, 이후 아테네 헌장과 베니스 헌장 등의 각종 선언과 헌장에 반영되며 실체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이론은 최근 30년 사이 초기의 이상주의적 원칙에서 점차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이론으로 수정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이수정, 2003). 이를 요약하면, 20세기 초에는 주로 물리적인 형태 보전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1980년대 이후 최근에는 다원론적 가치를 반영하여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또한 문화유산 선정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보전 대상 또한 다양화 되어 역사적인 정원과 조경, 목조건축, 역사도시, 수물지역 등을 포괄하게 되었다.

주요 변천 특징을 살펴보면, 20세기 초 레이글(Reigl, 1902)은 물리적 구조물의 시간성, 기념성, 새로운 기술 등을 문화유

표 2. 국외 주요 문화유산 평가 기준의 변천

구분	Reigl (1902)	Attoe (1979)	Lipe (1984)	Frey (1997)	English Heritage (1997)	The Australia ICOMOS (Burra Charter, 1999)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2)
보전 관련	역사적 가치	시간성(오래된) 역사적 기념성 새로운 기술	전형성 희소성 최고의 것	관련한 상징성		역사적	역사적
	미학적 가치	새로운 양식	미학적	미학적	미학적	미학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가치		역사적 역할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		문화적	사회과학적 (정신적, 정치적, 국가적, 기타 문화적)	정신적/종교적/문화적/ 상징적/사회적 * 모든 보전 가치는 사회문화적 가치로 수렴함
	학술적 가치			정보의 제공	학술적 자원적	*사회과학적 가치에 학 술적 가치 일부 포함	*사회과학적 가치에 학술적 가치 일부 포함
활용 관련	교육적 가치			교육적	교육적		* 교육적 가치의 내용을 경제적 가치에 포함
	경제적 가치			화폐교환적 (monetary) 선택적 존재적 후세 전승적 명성(prestige)	경제적		경제적 가치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존재적 가치, 전승적 가치)] * 모든 활용 가치는 경제적 가치 로 수렴함
	기타				여가적 (recreational)		

산 보전의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였다. 이후 문화유산 보전은 대부분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베니스 현장을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64년 베니스 현장에서 '진실성(integrity)'이 중요한 본질로 거론되었고, 70년대 후반에는 이를 '진정성(authenticity)'으로 변경하였다¹⁾. 이는 문화유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리적 형태나 아름다움이 아닌, '진정성'임을 제시한 것으로 문화유산 가치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다만 진정성이 문화유산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보전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디자인, 재료, 장인기술과 세팅된 건조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수정, 2003). Attoe (1979)는 기존의 개별 건조물 중심에서 도시계획 관점에서 건축물의 보전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개별 건축물 중심의 사고에서 도시와 지역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 보전의 중요성을 제시한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며, 라이프(Lipe, 1984)는 앞서의 외형적 형태 중심의 미적(aesthetic) 가치뿐만 아니라, 대상이 어떤 정보(information)을 담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 형태 중심의 가치 평가에서, 대상이 제공해 주는 무형의 정보 또한 주요한 가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였다. 이처럼 80년대에는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점차 확산되었고, 1994년 일본에서 진행된 나라현장, 진정성에 관한 학술대회(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게 되었다. 나라현장에서는 기존 서구 '물리적 원형

보전'의 기준으로 보전될 수 없는, 동양 문화유산의 가치, 즉 '정신적' 가치 보전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구성요소, 활용과 기능, 전통과 기술 외, 장소와 배치, 정신과 정서를 진정성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제안하였다(ICOMOS, 1994). 나라현장에서 각 문화유산은 각 문화마다의 다양한 가치에 따라 재평가될 필요가 있음이 주장된 것이다. 그 외 Frey (1997)는 문화유산의 평가에 있어 후세에 전승했을 때의 가치, 교육적 가치, 존재하기 때문에 부여되는 가치를 경제적 관점에서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이후 베라헌장(Burra Charter)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기존 물리적 구조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치적인 가치가 문화유산 선정에 있어 주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었다. 반면, English Heritage(1997)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있어 보다 진보적인 제안을 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문화유산 평가의 주요한 세부기준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에 관한 논란은 급증하였고, 평가 기준이 확장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립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2002년 게티보전협회(Getty Conservation Institute)는 세계 문화유산 보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약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논의를 통합한 주요한 연구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 게티보전협회는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가치는 기존의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확장된

표 3. 근대 문화유산 가치 평가를 위한 항목

구분	주요 가치	세부 가치 평가 항목
보존 관련	역사적 가치	오래된(age) 정도, 일정 시간대의 생활상 반영, 역사적 인물·사건·배경과의 관련성(relation), 진귀하거나 특이하여 당시에만 형성된 유산(rarity & uniqueness), 특수한 기술이나 재료(technic & material), 시대의 관습 및 사상이 반영된 것(habit & idea) 등
	미학적 가치	아름다움(beauty), 디자인(design), 독특한(rarity) 형태, 최상(best)의 것, 시대적인 양식(style)을 잘 반영되어 좋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 등. 그 외 미학적 가치는 감각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냄새(smell), 소리(sound), 느낌(feeling)까지로 대상 확대
	사회문화적 가치	역사적(historical), 정치적(political) 민족 특유의(ethnic) 것이 반영된 것, 공동체의 삶이 반영된 것, 사회 및 문화의 상징적 표현, 시장, 의식, 마을의 놀이 등의 문화적 행태 및 관련한 결과, 개인부터 집단까지의 특별한 행태 및 민족적 특수성의 반영 등 종교적 가치(religion value)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교와 관련된 가르침, 종교와 관련된 신념체계, 시설 등을 포함한다. 그 외 정치적 가치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적 가치	학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
활용 관련	교육적 가치	과거로부터 얻은 지식(knowledge)을 미래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과거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interpretation), 당시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경제적 가치	이용가치(직접이익, 비직접이익), 비이용가치(선택, 존재, 기타 전승적 가치)

역사적, 문화적(상징적), 사회적, 정신적(종교적), 미학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해당 문화재가 보존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이용가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다만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문화재 보전에 경제적 가치가 우선 시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일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보다 본래 문화재가 갖추어야 할 역사적, 종교적, 미학적,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와 선정 기준은 주로 20세기 이후 현대 보전이론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서양적 관점에서 구조물의 형태, 기술, 시간, 양식 등의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베니스 헌장에 제시된 진정성 문제, 80년대 사회적으로 다루어진 다원론적 가치가 반영되며, 비물리적 속성인 사회문화적, 교육적, 정신적 가치를 점차 수용하며 발전되었고,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 평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며 전반적인 대상과 개념의 확장 속에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 근대 문화유산 평가 기준 제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선정 기준과 국외 선정 기준을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특히 근대 문화유산의 많은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문화유산의 보전 가치와 활용 가치로 구분하였다. 보전 가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본래적 가치라 할 수 있으며, 활용 가치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다만 각 문화유산은 한 가지의 가치로 평가되지 않으며, 각 가치 또한 서로 명확히 분리되기 보다는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가치는 '진정성'

을 중심으로 수렴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는 전통적으로 중요시 되어 왔던 가치로 주로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평가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가치는 다른 가치와 공유될 수 있으나, 이중 최고의, 최상의, 특이한 등이 부각된 가치를 말한다. 미학적 가치는 시각적 질과 관련이 높으며, 아름다움, 디자인, 독특한 형태, 시대적인 양식을 잘 반영한 좋은 것 등을 말한다. 미학적 가치는 주로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으며, 사회문화적 가치를 폭 넓게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학적 가치가 감각적 가치의 범위로 포함됨에 따라 냄새, 소리, 느낌까지 확대하여 포함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는 비물리적 측면의 가치로 비교적 최근에 확장된 평가 기준이다. 모든 문화유산은 실상 근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속성을 간직하고 있다. 다만 개별 건조물이나 시설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대상 또는 사회적 의미를 반영한 가치를 주로 다룬다. 공동체의 삶이나 민족 특유의 것이 반영된 것, 시장, 의식, 마을의 놀이 등 문화적 행태와 그 결과물이 이에 포함된다. 그 외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 정치적 가치 등이 있으며, 대상의 현황과 상황에 따라 개별 가치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학술적 가치는 문화유산의 1차적 가치 기준이라기 보다는, 문화유산을 통해 제공해 주는 학술적 정보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근대문화유산에 있어 사회문화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는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근대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성장하여 자생적 양식이 형성되지 못하여 미학적 가치가 높은 건조물이 많지 않으므로 사회문화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로 기존 연구가 건축 관련 연구자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건축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등록된 국내 등록문화재를 살펴보면 개별 건조물 보다는 장소와 인물 등 개별 건조물 외에 사회적 관계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건조물의 역사적, 미학적 가치보다는 그 관계인 사회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 등으로 평가되는 것이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앞서의 보전가치와 더불어 활용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근대 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제안하였다. 각 가치는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이용 및 활용을 통해, 해당 문화유산이 가치를 얼마나 제공해 주는가가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교육적 가치는 학술적 가치를 통해 확인되고 제공되는 지식을 통해 미래로 전달해 줌으로써,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치를 말한다. 경제적 가치는 이용 또는 비이용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의미하며, 이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활용에 있어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때 주요한 활용 가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 사항은 정책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가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내용적으로 중복되나, 경제적 분석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차별성을 가진다. 경제적 가치²⁾는 이용 가치와 비이용 가치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문화유산 평가 기준 관련 문헌고찰과 기준 제안

문화유산의 평가 기준은 존 러스킨(John Ruskin) 이후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변화해 왔음에 따라, 1902년부터 2000년 초까지 발간된 주요한 평가 기준 관련 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특히 80년대 이후 가치 평가 기준이 다원화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유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베니스 현장, 나라 현장, 베라 현장 등의 유네스코 현장을 분석하였고, 국내 평가기준 연구를 함께 고찰하여 그 특성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존 문화유산의 평가 기준이 보전 가치를 중심으로 고려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대 문화유산에 맞도록 보전가치와 활용가치로 재구성하여 기준을 제안하였다.

2) 근대 문화유산 평가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측정

(1) 상대적 중요도 측정을 위한 쌍대비교 척도법

도출한 선정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쌍대비교를 이용하였다. 쌍대비교 척도법은 어떤 주관적 특성에 관하여 개인이나 대상물 또는 사건에 대한 척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써, 주어진 진술문을 다른 진술문과 비교하

여 그 판단의 분포를 가지고 척도치를 유도해 내는 방법이다(임인재와 임승권, 1983). 이는 써스톤(Thurstone)이 제안한 판단 척도모형(Thurstone's judgement scaling model)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련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를 비교적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김정만과 이상도, 1993),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인 형태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 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더불어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관을 쉽게 포착할 수 있고, 단순성, 명확성, 간편성, 범용성이 높다(조근태 등, 2003). 쌍대비교는 비율척도(ratio scale)를 사용함에 따라 단위와 무관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인간감성을 쌍대비교를 통해 측정된 수치를 1/1000 단위까지 계산하여 수치를 사용하였다(김정만과 이상도, 1993).

쌍대비교는 평가에 적합한 전문가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며, 최근 국내에는 계층화를 통한 쌍대비교법인 AHP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쌍대비교는 평가에 적합한 전문가(1~3인) 소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자의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평가자 7~8인으로 확대하고, 이 중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 5~6인의 응답결과를 종합평점을 도출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1~20명 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신용광 등, 2005; 채근식과 이응봉, 2004; 박재현, 2004), 일부 일반인 및 전문성이 낮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00인 이상으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나란희 등, 2010). 쌍대비교 척도의 경우 9점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9점 척도를 이용한 의사결정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Satty, 1995).

쌍대비교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일관성 비율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CR<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합리적인(resonable)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CR<0.2 이하는 허용(tolerable)할 수 있는 CR<0.3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제조사가 필요하다(Satty and Vargas, 2001). 이것을 기준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CR과 CI 모두 0.15 이하일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刀根 熏, 1986; 신용광 등, 2005). 이에 국내 연구에서는 연구 특성에 따라 CR<0.1 또는 CR<0.2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관성비율은 $CR = CI/RI$ 로 계산하며,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 (\lambda_{max} - n) / (n - 1)$)는 쌍대비교행렬을 통해 측정한다. 하지만 행렬의 크기에 따라 일관성이 낮아짐에 따라 난수를 이용한 무작위 일관성지수(Random Index, RI)를 통해 보정한다.

(2) 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총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³⁾. 설문은 근대 및 전통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과 유네스코 및 문화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2년 3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 시행하였고, 전화통화 및 방문 후, 직접 또는 이메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답변 중 일관성 비율(CR<0.10)이 높게 측정된 총 63개의 답변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일관성은 있으나 편의(biased)를 보인 1개의 표본을 제외 후, 총 4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⁴⁾. 설문은 6×6 행렬을 이용하였고, 이에 무작위 일관성지수는 1.24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은 Microsoft Excel 2007과 Spss 17.0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 및 분석대상자 특성

앞서 도출한 근대 문화유산 평가 기준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각 평가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4.7%, '여성' 45.3%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근대' 40.6%, '전통' 59.4% 분포하였다. 직업별로는 '학계 및 연구원' 45.3%, '공무원' 54.7%로 조사되었고, 학력별로는 '박사' 13.2%, '석사' 34.9%, '학사' 51.9%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1.5%, '40대' 35.8%가 주로 높게 나타났다. 일관성 분석을 토대로 일관성비율(CR<0.1)이 낮게 측정된 42개의 분석 대상을 추출하였으며, 평균 CR=0.069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통 분야에 비

표 4. 응답자 및 분석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설문 대상자		분석 대상자(CR=0.069)		
	명	비율(%)	명	비율(%)	
분야별	근대	43	40.6	25	59.5
	전통	63	59.4	17	40.5
학력별	박사	14	13.2	11	26.2
	석사	37	34.9	19	45.2
	학사	55	51.9	12	28.6
나이	20대	3	2.8	3	7.1
	30대	44	41.5	18	42.9
	40대	38	35.8	15	35.7
	50대 이상	21	19.8	6	14.3
성별	남	58	54.7	19	45.2
	여	48	45.3	23	54.8
직업	학계 및 연구원	48	45.3	29	69.0
	공무원	58	54.7	13	31.0
합계	106	100.0	42	100.0	

해 근대분야의 전문가 답변이 보다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답변의 일관성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학계 및 연구원 분야의 전문가가 공무원에 비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였다.

1) 근대 문화유산 평가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측정값

측정 결과,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가치와 활용가치는 0.80과 0.20로 보전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의 선정에 있어 보전가치를 활용가치에 보다 4배 정도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다.

반면, 세부 6가지 가치 기준의 분석 결과,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측정값은 0.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타 가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근대 문화유산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중요한 가치였던 미학적 가치(0.13)는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고, 최근에 등장한 사회·문화적 가치(0.21)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대 문화유산의 경우, 기존 전통적 문화유산과 달리 삶의 과정을 담고 있는 유산으로 그 의미와 관계를 중요시함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여러 학자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활용 가치로 분류된 교육적 가치(0.11)와 경제적 가치(0.07)는 보전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가치는 문화유산의 보전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선정 기준 요소로 분류되었다. 최근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연구가 다수 등장하고 있지만, 문화유산 보전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정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가 시 역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등한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문가들이 비록 그 수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였지만, 문화유산의 선정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하나의 평가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가치의 의미는 보전 대상의 선정기준보다는 그 가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련 보전 정책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 근대 문화유산 선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중요도	순위	구분	중요도	순위
보전 가치	0.80	1	역사적 가치	0.36	1
			미학적 가치	0.13	3
			사회·문화적 가치	0.21	2
			학술적 가치	0.12	4
활용 가치	0.20	2	교육적 가치	0.11	5
			경제적 가치	0.07	6

표 6. 분야 간 근대 문화유산 선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

구분	중요도	순위	구분	중요도	순위
근대 분야	보전 가치	1	역사적 가치	0.35	1
			미학적 가치	0.13	3
			사회·문화적 가치	0.23	2
			학술적 가치	0.12	4
	활용 가치	2	교육적 가치	0.10	5
			경제적 가치	0.07	6
전통 분야	보전 가치	1	역사적 가치	0.39	1
			미학적 가치	0.12	3
			사회·문화적 가치	0.19	2
			학술적 가치	0.12	4
	활용 가치	2	교육적 가치	0.10	5
			경제적 가치	0.08	6

2) 분석 대상자 간 중요도 차이

본 연구에 있어 분석 대상자 간 답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평가하고 있다. 근대분야 전문가의 경우, 전통분야 전문가에 비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약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 외 가치는 거의 유사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전통분야의 전문가와 근대 분야 전문가는 타 가치는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역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근대 분야의 전문가는 근대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성별, 연령별, 학력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학계 및 연구원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역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계 및 연구원은 역사적 가치(0.34)와 사회·문화적 가치(0.25)로 측정되었지만, 공무원의 경우 역사적 가치(0.42)와 사회·문화적 가치(0.14)로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 평가하고 있어 직종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³⁾. 이를 통해 살펴보면 분야별, 직종별 전문가에 따라 역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근대문화유산의 선정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 선정 및 구성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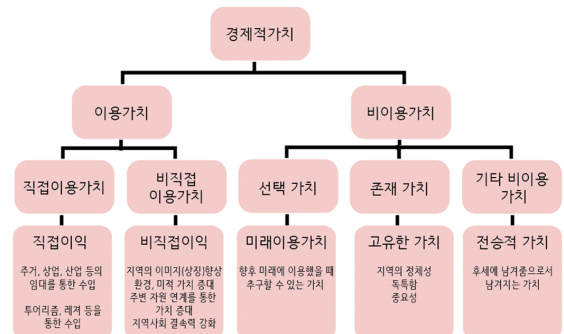
국내외 문화유산의 가치기준 선정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건축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등이 근대 문화유산 선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중요

시 되었던 역사적 가치는 문화유산의 선정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였지만, 최근 등장한 사회·문화적 가치는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미학적 가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전 이론의 패러다임 변화와 근대문화유산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경제적 가치는, 문화유산의 본래적 가치라기보다는 측정과 반영을 통해 정책의 입안과 홍보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앞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등록문화재 지침 내에는 사회문화적 가치 관련 문구가 이미 담겨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관련 연구가 주로 건축분야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어 건축물의 건축적, 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둘째, 아직 그 외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구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구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가치는 문화경관에 투영되어 있으며, 문화경관 연구는 전통적으로 조경학과 지리학의 중심 연구주체로 다뤄져 왔다. 따라서 향후 근대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있어 문화경관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조경가와 인문지리학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분명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특히 주관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화유산의 선정기준을 절대적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분명한 연구의 한계이고, 각 유산의 독특성을 일반적 틀로서 평가하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전문가의 시선이 닿지 못하여 근대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철거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 제3센터, 지자체와 향토사학자 등이 스스로 발굴하여 비교적 손쉽게 1차적으로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 1) '현 세대의 전달된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최대한 보호하여, 다음 세대에 계 물려주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베니스헌장(1964)
 주 2) 그 외 경제적 가치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주 3) 그 외 2, 4, 5, 8 및 1/2, 1/4, 1/6, 1,8 등의 중간값 사용 가능함.

질문	극히 중요 (9점)	매우 중요 (7점)	상당히 중요 (5점)	약간 중요 (3점)	중립 (1점)	약간 중요 하지 않음 (1/3점)	상당히 중요 하지 않음 (1/5점)	매우 중요 하지 않음 (1/7점)	전혀 중요 하지 않음 (1/9점)
Factor01이 Factor02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4) 일반적으로 일관성 지수는 충족하나, 편의(biased)를 보이는 측정값은 대응가능지수(Compatability Index or Substitut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제거한다(Satty, 2008; 김영 등, 2009).

주 5) 그 외, 공무원들은 미학적 가치(0.14), 학술적 가치(0.12), 교육적 가치(0.09), 경제적 가치(0.09)로 나타났으며, 학계 및 연구원은 미학적 가치(0.12), 학술적 가치(0.12), 교육적 가치(0.11), 경제적 가치(0.06)로 비교적 유사하게 평가되었으나, 공무원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미학적 가치와 활용과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인용문헌

- 김영, 안성진, 박진호, 최진도(2009) AHP기법을 이용한 건강결정요소 및 건강도시사업 가치지 분석. 도시행정학보 22(3): 365-387.
- 김정만, 이상도(1993) 일대비교에 의한 관능평가능력의 동적관별. 대한인간공학회지 12(2): 85-91.
- 김중현(2006) 등록문화재 제도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공학논문집 8(1): 1-8.
- 김정신(2004)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 건축역사연구 13(4): 181-188.
- 나란희, 윤용철, 김영주(2010) AHP법을 이용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성과분석.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 44(4): 57-68.
- 문화재청(2001)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문화재청.
- 박근수(2000)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존관리지침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민, 성종상(2012)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 65-72.
- 박재현(2004) 분석적 계층과정을 이용한 관광지 입지선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텔관광연구 6(1): 134-152.
- 신용광, 김창길, 김태영(2005)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 농촌경제 28(2): 39-56.
- 이근규(1996) 기존 건축물의 보존여부 판별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 김태영(2008) 문화재정보에 게시된 역사적·학술적·건축적 가치의 내용적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53): 177-184.

- 이수정(2003) 현대 보존이론의 변화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원형보존의 원칙. 경주문화연구 6: 200-224.
- 이승진(2000) 한국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재, 임승권(1983) 교육평가.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정민섭, 한혜숙, 박선희(2008) CVM을 이용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3): 175-196.
- 정이순(2005)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산의 현존건축물사례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봉희(2008) 서울시청사 사건과 등록문화재 제도. 건축과 사회 14: 184-186.
- 전승재(1999) 근대건축물 보존에 관한 연구: 강경의 현존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근태, 조용근, 강현수(200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원출판사.
- 채근식, 이용봉(2004)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AHP 기법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03-152.
- 한국개발연구원(2004)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刀根熏 (1986) ケ-ム感覺意思決定法: AHP入門. 日科技連.
- Attoe, W. O.(1979) Historical preservation. in A. J. Catanese & J. C. Snyder. An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aw-hill Book Company.
- De La Torre, M.(2002) Assessing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 L.A.: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English Heritage(1997) Sustaining the Historical Environment: New Perspectives on the Future. London: English Heritage.
- English Heritage(2007) Industrial Buildings Selection Guide. London: English Heritage.
- Frey, B.(1997) Evaluating cultural property: The economic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6(2): 231-246.
- ICOMOS(1994)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ICOMOS.
- Lipe, W.(1984) Value and meaning in cultural resources. In Approaches to the Archaeological Heritage, ed. H. Clee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gl, A.(1902) The Modern Cult of Monuments: Its Character and Its Origins. Cambridge: MIT Press.
- Satty, T. L.(1995), Decision Making for Leaders. Pittsburgh: RWS Publications.
- Satty, T. L. and L. G. Vargas(2001) Model Methods: Concept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he Australia ICOMOS(1999) The Berra Charter. ICOMOS.

원 고 접 수 일: 2012년 10월 30일
 심사 일: 2012년 12월 11일(1차)
 2013년 1월 30일(2차)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4일
 3인익명 심사필